

(정부 설명 자료입니다.

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정치인을 기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 같습니다.

아니 정치인들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.

그런데 둘 중의 하나가 범인,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그런데 국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)

이런 황당한 가정을 적용하여 누적적자가 6,973조원 줄어든다는 황당한 수치를 언론에 뿌리고 있습니다.

국민연금 기금 투자 수익률이 **현행 제도에서는 4.5%, 13·43(보험료 13%와 소득대체율 43%에서는) 5.5%를 적용**해서입니다.

똑같은 국민연금 제도인데 **왜? 하나는 4.5%를 적용**하고, **다른 하나는 5.5%를 적용**하는 겁니까?? 어제 제가 YTN 생방송할 때 사용했던 2064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그 내용이 하루 만에 **2071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7년이나 뺄뺄**을 하면서 누적적자 감소폭도 그만큼 뺄뺄을 해 놓았습니다.

누가 이런 지시를 해서, 이런 황당한 내용들을 언론에 뿌리고 있는 걸까요?

오늘 이후로 **연금연구회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섰다고 말씀드린 배경**입니다.

(정부 설명 자료)

- 이번 개혁으로 **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,**
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 기대

< 대안별 재정 전망 >

구 분	기금소진	필요 보험료율(%)		수지균형 보험료율(%)	현행 대비 누적 수지적자
		최고('79년)	'93년		
9·40 (현행)	2056년	36.6	31.2	19.7(+10.7%p)	-
13·43	2071년(+15년)	39.2	33.6	21.2(+8.2%p)	-6,973조원

- * 필요 보험료율 : 한 해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그 해 보험료율
- * 수지균형보험료율 : 확정된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(40년 가입 - 25년 수급)
- * 기금투자수익률 : 현행 4.5%, 13·43은 5.5% 적용
- * 현행 누적 수지적자(~'93, 경상가) : 2경 1,669조원